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4. 11. 8.(금) 09:00

## 사상 첫 호주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 준비에 본격 착수

- 금년 중 호주달러 외평채(미 달러 기준 3억불 한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 완료 -
- 호주지역 대면 투자자설명회 개최 등 성공적인 발행 준비에 만전 -

정부는 11.7(목), 호주 달러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을 완료함으로써 발행 준비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번 발행은 정부의 사상 첫 호주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다.

\* ANZ(Australia and New Zealand), Mizuho, Nomura 등 금융기관 3개사(社)

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첫째, 한국 채권에 대한 세계 투자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하기에 적기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직접 새로운 해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에는 각종 연기금\*, 세계 자산운용사 등 다수의 우량 투자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예) 호주 연금(Australian Super), 대학 연금(Uni Super), 교직원 연금(Future Super) 등

둘째, 작년 엔화에 이어 올해는 호주 달러라는 새로운 통화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해당 통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 정부는 달러화 외에도 유로화, 위안화,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평채 통화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수출입은행('24년 10억불, '23년 8.5억불), 주택금융공사('23년 3.2억불), 신한카드('24년 3억불), 신한은행('24.11월 예정) 등 국내 다수 기관들이 호주달러 표시 채권 발행

셋째, 발행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양호한 대외·재정 건전성 및 외환·자본 시장 선진화 등 투자 접근성 제고 정책을 세계 투자자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성과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기초여건(펀더멘털)과 투자매력도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첫 호주달러 채권 발행 시도인 만큼, 정부는 이번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발행에 앞서 호주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투자자설명회(로드쇼)가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투자자 콜(GIC, Global Investor Call)’ 등 비대면 홍보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및 미(美) 대선 여파, 중동 불안 등 위험요인이 잔존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참여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및 채권발행시장 동향도 일일 단위로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할 것이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유창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윤현곤 (gonnnn@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